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속도'

시, 부지개발 선결조건 호텔·쇼핑시설 단지 등 대체시설 개발로 탄력 월드컵경기장 일대 스포츠경기 관람·생활체육 즐길 수 있는 공간 집적화

전주시가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에 본격 착수하면서 기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동시에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는 기존 축구장에 이어 육상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거듭나게 됐다.

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과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이들 두 곳이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이자,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시설 건립으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속도'

전주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사업은 기존 전주종합경기장의 노후화된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로 옮겨 짓는 사업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규모 컨벤션과 호텔, 쇼핑시설 등을 두루 갖춘 글로벌 마

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대체시설 건립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을 위한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이 첫 삽을 뜨면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활용에도 숨통이 트인 만큼, 전주의 심장부인 이곳이 관광과 숙박, 유통, 문화, 예술, 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 스포츠타운 완성도 UP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에 착수하면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시민들이 언제든지 수준 높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생활체육과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도 점차 실현되고 있다.

이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FC모터스의 홈경기가 일년 내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

들어서면 크고 작은 각종 경기가 열리게 돼 시민들의 스포츠를 직접 즐기거나 관람할 수 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는 또 실내체육관도 신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로농구 KCC이치스농구단의 수준 높은 경기를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실내스포츠 경기도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전주월드컵광장에는 오는 2025년에 개최 예정인 드론축구 월드컵의 개최 장소이자, 지역 드론 산업 발전의 거점공간이 될 '전주 드론스포츠복합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기존 야구장이 철거됐고, 새로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전주의 대변혁이 시작됐다"면서 "전주를 받쳐줄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사람이 모이는 환하고 밝은 도시, 일상에서 쉽게 체육활동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 현장점검

호자다리 찾아 배수시설 점검 안전관리·사전 대비 당부

우범기 전주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 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27일 오후 완산구 호자다리를 찾아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 변동에 따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차로를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전부서와 도로관리부서, 하천관리부서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 찾은 우범기 시장은 주변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만약



의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여름철 잦은 돌발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폭염 일수 증가에 대비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재해 대책 기간 중 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상예비특보

단계부터 신속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여름철 풍수해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철저한 모니터링에 임해 달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주변 환경정비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메콩강 3개 도시와 국제교류 활성화

전주시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문화유산교류: 한-메콩지역 지속가능스마트관광 활성화' 행사에서 반현이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과 태국 아유타야 당 부서기, 라오스 루앙 프라방 부시장, 캄보디아 시엠립 문화관광부처 기획투자관광상품개발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탄소중립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받고~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 기여 1만2000여세대에 2억100만원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예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전주시민이 최소 1만2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022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1만2000여 세대에 2억1000만 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가정과 상업, 단지(아파트, 학교)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5% 이상 감축할 경우 가입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주지역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참여자가 지난해 1년 간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8658톤CO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194만여 그루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현금 또는 그린카드, 기부(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개인의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연중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세대는 온라인(www.cpint.or.kr)을 통해 가입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기후변화대응과를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오류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인센티브는 발생일부 터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부유형의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권역별 청소책임제 관련 준비사항 최종 점검

전주시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에 앞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대행업체 관계자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27일 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및 관계자,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수행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 수거 시행에 앞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

화를 위해 의견을 공유받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소 수거 체계를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권역 수거 시행에 앞서 준비사항들을 최종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는 향후 시·구 합동으로 권역별 1:1 담당팀을 편성해 청소수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던 잔재쓰레기를 줄여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